

익산시 소상공인 긴급수혈 공유재산사용료·대부료 감면

1차 약 27억원 집행... 공공요금·신용카드수수료 지원 각 3천여건

익산시가 코로나19로 휘청거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며 1차로 약 27억원을 집행해 긴급 수혈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4월초부터 신청이 쇄도한 특별지원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요금 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지원 각 3천여건에 대해 1차로 총 27억여원을 집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접수 20일만에 공공요금 지원 신청은 7천7백여건에 달해 예산대비 83%에 이르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6,400여건으로 이미 예산이 소진된

상태로 시는 예산 부족분에 대해 전복도에 추가 지원 요청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전액을 지원하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이로움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위해 코로나 19로 조업이 중단된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 중 무급 휴직을 실시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 지원은 22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등의 지원 신청은 42건 접수했다.

한편 사회보험료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두부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4월 27일경 관련 명단을 확보한 후 대상자들에 우편 발송하여 신청토록 할 예정이다.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공무원, 단기일자리 등 총 60여명이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제3산업단지 입주한 (유)네오클(대표 한뿌리)은 21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사회재난인 코로나19 극복 동참을 위해 자사 제품인 다목적 살균소독제 1,000개(1,5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네오클, 익산시에 살균소독제 기탁

친환경 소독·탈취제 전문업체 지난해 11월 익산 3산단에 입주

익산시 제3산업단지 입주한 (유)네오클(대표 한뿌리)은 21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사회재난인 코로나19 극복 동참을 위해 자사 제품인 다목적 살균소독제 1,000개(1,5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네오클은 살균소독 및 탈취가 필요한 생활 영역에 적용 가능한 순수 이산화염소수(ClO2)의 장기보존 안정화

제어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 친환경 소독·탈취제 전문 업체로 작년 11월에 익산 3산단에 입주해 국내는 물론 호주, 중국 등 다수의 업체와 방역 및 탈취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탁된 살균소독제는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 처리 후, 익산시 보건소에 전달 될 예정이다.

한뿌리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익산시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소독제를 기탁하게 되었다."며 "이번에 기탁한 소독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익산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중한 기탁물품이 전염병 예방과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익산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10개 기관 127개소 7월말까지

익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등을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감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만 거쳐도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른 지원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 할 방침이다.

실정이다.

특히 시립도서관과 국민생활관은 휴관으로 인해 미운영한 구내 식당 및 매점에 대해 휴관 기간동안은 전액 면제 조치하여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경하고 지원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로 정했다. 이번 조치로 감경액은 총 1억3,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감경 확대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영주권자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철원)은 최근 익산시의회 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합의, 익산시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익산시의 2회 추경 제출과 시의회 통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둔 주민과 결혼이민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이번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서 영주권자는 제외되었다.

임형택의원의 제안을 시작으로 위원

회 위원들 사이에서는 ▲선거권을 가지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등 영주권자는 사실상 일반 주민과 차별할 이유가 없으며, ▲시민들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에도 관련 절차 이행에 서둘러 시에 거주하는 모든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하였다.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영주권자는 사실상 권리행사와 의무수행에서 내국인과 다를 바가 없다면, 성실히 익산시의 일원으로서 살아오신 그분들에게도 힘을 나눠드리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공원 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익산시가 관내 공원 전역의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원 화장실 52개소 중 안심비상벨이 미설치된 31개소 여자화장실에 대하여 안심비상벨 설치 완료해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한다.

안심벨은 화장실 내부에서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건물 외부 경광등과 경보음이 작동해 인근 시민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동시에 112종합상황실에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송신돼 관할지구대 경찰관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안심비상벨을 설치 함으로서 여성의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안심 비상벨의 설치 자체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들이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공원내 분리된 남녀 화장실 8개소를 설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매월 1회씩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군산시 용역 착수보고

군산시가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윤동욱 부시장, 국·소장 및 실무추진단 소속 부서장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용역 과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한 군산 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핵심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용역은 (주)글로벌엔로컬브레인인 크에서 오는 2021년 1월까지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중심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민연구단 운영과 시민정책제안 공모전을 추진하는 한편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시민, 의회, 사회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공공 야외체육시설 개방

군산시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조절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는 야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22일부터 전면 개방한다.

개방하는 체육시설로는 월명종합경기장과 국민체육센터, 수송공원, 금강공원, 소룡공원, 생말공원 내에 있는 야외 체육시설들이다. 또한, 오는 주말부터는 축구, 야구 등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리그도 가능하게 되며, 생활체육인들의 무관중 혹은 소규모 경기도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그간 방역에 힘써 왔으며, 장기간 휴장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의 피로도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단,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체육활동을 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